

'완결'을 유보한 미완의 혁명

'辛亥革命'은 혁명인가

閔斗基

서울대 교수·동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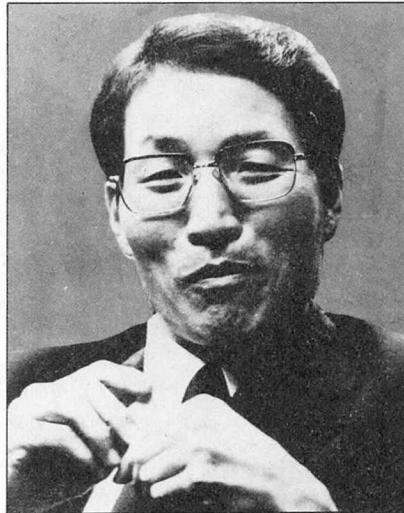
신해혁명을 보는 시각

일반적으로 신해혁명은 1911~12년에 걸친, 청왕조가 몰락하고 중화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을 말한다. 2천년을 넘게 지속된 왕조체제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그것은 '혁명'으로 평가돼왔다. 그러나 왕조의 종말이 곧 체제변혁을 위한 권력장악으로서의 혁명을 뜻하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清朝는 망했으나 제국주의세력은 제거되지 않았고 청조의 사회적 영도계층인 紳士層은 여전히 지배권을 장악했으며, 군벌세력의 정치적 지배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橫山英은 '신해혁명은 혁명이 아닌 변혁'이라고 분석한다. 즉, 부르주아적 요소를 포섭, 봉건적 지배를 재편하려는 半식민지·半봉건적 권력의 수립을 겨냥한 정치변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半식민지·半봉건적 세력이 이룩한 '半식민지적 절대주의'가 그후 전개되는 역사의 방향을 규정짓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橫山은 국민혁명의 북벌로 북양군벌정권이 타도된 뒤에도 여전히 南京정부 이후의 중화민국(국민당) 정권이 계속된다고 본다. 1911~12년의 변화로 성립된 중화민국과, 국민혁명의 북벌로 성립된 중화민국은 명칭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두 정권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橫山의 신해혁명 규정은 정확치 않다. 또 南京국민정부의 성격으로 지적된 '半봉건'과 '半식민지'가 꼭 일체화된 개념인가의 의문도 제기된다.

이렇게 볼 때 반제국주의적인 자주국가·경제건설과 대중적 사회기반을 가진 사회구조·가치구조를 이루려는 흐름이 1911~12년 변화 이후에 전개됐느냐는 것이 논점이 된다. 즉 1911~12년의 변화가 '혁명적 시작'이었느냐는 문제다. 反帝 인식은 처음에 反清에 한정됐다가, 5·4운동에서 제국주의 핵심인 일본에 대한 공격을 행동화함으로써 혁명적 역사현상을 이루게 된다. 또 황제권의 절대적 권위를 대신할 가치수립의 시도가 병행되지 않다가 5·4운동을 계기로 개인주의, 합리주의, 민주(평민)주의, 사회주의가 탐구됐다. 혁명적 구성성분이었던 농민의 활동은 조직적이지 못했으나 5·4운동기에는 학생·노동자·상인 등의 대중적 조직을 바탕으로 행동이 표면화된다. 이렇게 볼 때 1911~12년의 변혁에서 제기된 문제는 5·4운동이 내실을 부여함으로



민두기씨

써 그 '혁명적 지속'이 구성됐다고 할 수 있다.

청조타도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1911~12년의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혁명이 주장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의 의화단 이후 개혁과 일부가 혁명으로 돌아서거나 러시아의 영토침략 의도가 가시화되어 일어난 拒俄운동(1901~05)중 특히 1903년 이후부터다. 따라서 1901년부터의 혁명에 '신해'를 붙이는 것은 비록 대표성을 나타내는 표현일지라도 적절치 않다. 내가 1901년에 시작되어 5·4운동까지 지속되는 혁명의 기간을, 民國을 형성하기 위한 혁명, 즉 民國혁명으로 부르는 것은 이때문이다.

全民혁명인가, 부르주아 혁명인가

신해혁명의 성격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 부르주아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불명확하고 일관성 없는 모택동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 적절치 않으며, 당시 중국 부르주아지는 부차적인 작용밖에 못했으므로 부르주아혁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또 부르주아혁명의 대체개념으로 '全民혁명'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전민혁명론'은 어느 한 계급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한 혁명이라는 기본입장을 지닌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 시기의 역사전개와 관련된 어떤 지향이 없는 '순수혁명' 개념이, 역사적으로 존재한다는 논증이 병행되지 않는 한 논리전개에 무리가 많다.

전민혁명론과 부르주아혁명론의 차이는 1983년 4월 시카고에서 중국·대만의 학자가

신해혁명은 과연 혁명인가.

신해혁명의 성격을

부르주아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가.

신해혁명에 참여한 계층은 누구인가.

1910년경부터 조성, 1912년의

왕조타도로까지 진전된 신해혁명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신해혁명은

다음 단계에서 완결을 기대하는

미완의 혁명이었다.

모여 신해혁명의 성격을 논한 자리에서 잘 드러났다. 대만측 張玉法の '전민혁명론' 주장을 중국측 章開沉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20세기초(1903~1907)에 자본가계층이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보였고, 둘째 신해혁명 영도자들이 자본(기계)생산의 발전을 바랐으며 평균 地權이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었고, 셋째 신해혁명을 주도한 것은 부르주아지의 의향을 반영한 새 지식분자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해혁명은 부르주아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章의 주장이다.

章의 반론은 부르주아지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신해혁명에 참여했는가에 대한 논증이 미흡한 문제점을 보인다. 또 사유제폐지를 기준으로 張玉法の '전민'론을 논박한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張은 사유제 존속여부의 본질문제를 논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다 참여한 형태로서의 혁명현상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해혁명이 부르주아혁명이라는 규정은, 혁명운동의 지향이 봉건적 체제의 폐지와 자본주의의 발달, 부르주아 정치체제의 확립에 있다는 것에서 찾아야 하며, 엄격한 계급분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해혁명에 누가 참여했는가?

청조타도를 가져온 신해혁명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층이 참여했는가.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은 孫文을 영도자로 하는 동맹회세력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청조의 타도를 주장했다 하여 '혁명파'로도 불린다. 손문은 1905년에 반청혁명세력을 연합한 동맹회를 결성했으나 1911년 당시에는 조직으로서의 활동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대만의 국민당계 史家の 주장처럼

럼, 손문이 신해혁명을 성공시켜 중화민국을 수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920년대의 국민혁명지도자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三民主義로 불리는 그의 일관된 정치이념의 힘 때문이었다.

왕조타도에 손문 이상 공헌한 세력은 급진적 새 지식인과 잘 훈련되고 문자 해독률이 높은 신식군대였다. 혁명당으로 불리는 급진주의적 지식인은 기존권위와의 도전가능성을 믿고 행동화했다. 또 신식군대의 일부는 과거 체제의 말단에 위치한 구지식층이어서, 축소돼가는 정부 정통성의 기반에 위기감을 느끼고 불확실성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했다. 한편, 청왕조는 잡다하고 과중한 새로운 조세를 농민들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광범한 저항이 일게 되었고, 이른바 혁명적 정세가 조성됐다. 이처럼 농민의 신해혁명 참여는 간접적인 방식이었고, 신식군대는 이들 농민이 조성한 혁명적 성분에 힘입은 직접적인 것이었다.

청조타도에 작용한 또다른 세력으로 '입헌파'라 불리는 계층이 있다. 이들은 紳士로서의 계층적 속성상, 서민층의 대중운동이 극도로 고양될 때면 진정시키려는 입장에 서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면 대중을 영도하여 청조에 대항하거나 혁명세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입헌파의 개혁지향적 성격만 가지고 혁명파와 대립시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해혁명은 실패했는가, 미완의 혁명인가

신해혁명을 실패한 혁명으로 표현하는 논자가 적지 않다. 청조타도 이후 전개된 사태가 '혁명적'이지 않으므로 '실패'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실패한 혁명은 혁명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해혁명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미완의 혁명이었다. 反帝를 문제로서 제기했으며, 부르주아적 정치·경제체제도 당위성이 인식된 체 내실획득은 다음 단계를 기다려야 했다. 또 몰락된 권위에 대신하는 가치도 그 다음 단계에 가서야 내실을 얻게 되며, 분산적이고 비목적적으로 전개된 대중운동에 민주(평민)주의 등의 이념적 기초를 부여하는 시도도 그 다음 단계에 가야 했다. 신해혁명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행동을 통한 문제제기로 일단 완결을 기대하는 미완의 혁명이었던 것이다.